

# 간호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경험

김춘길<sup>1</sup> · 이영희<sup>2</sup>

한림대학교 간호학부<sup>1</sup>, 관동대학교 간호학과<sup>2</sup>

##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with Demented Older Persons

Kim, Chun-Gill<sup>1</sup> · Lee, Young Hee<sup>2</sup>

<sup>1</sup>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Chuncheon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Korea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for demented older persons in geriatric in care facilities. **Methods:** The subjects were ten nurses employed in geriatric care facilities. Open in-depth interviews were used to collect data from January, 2010 to October, 2010. The Colaizzi phenomenological method was used for data analysis. **Results:** The experiences of nurses' caring for patients with dementia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ix categories: 'new encounter', 'understanding of intention and satisfying', 'dilemma of caring', 'contriving of comfort', 'comprehensive coordinator', and 'being present'. There were 15 clusters of themes. The subjects stated that the best caring for the demented older persons were 'encounter, knowing, and being with them'. **Conclusion:** Nurses' caring coul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demented older patients in geriatric care fac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titutional, administrative strategies and schemes need to cluster around the relationship with patients who would include encounter knowing and being with them.

**Key Words:** Caring, Aged, Dementia, Qualitative research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노인인구는 이미 2008년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치매노인의 유병률도 2010년 8.8%에서 2020년 9.7%, 2040년에는 11.2%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노인의 인구증가와 고령화에 따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의 증가, 그 중 치매 환자의 증가는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치매는 뇌질환으로 다른 질병과 달리 기억력 저하, 정서 변화, 인지기능 장애 및 기동력 변화에 따라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점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Roger, 2008). 이로 인해 치매노인은 점차 심도 있는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되며, 돌봄 제공자중 간호사는 치매노인의 잔존기능과 자원을 조절하여 돌봄을 개별적이고 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므로 치매노인에게 간호사의 돌봄은 매우 중요하다(Hendrix & Wojciechowski, 2005; McCloskey, 2004). 이는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사의 돌봄 중요도 인식이 관절염, 뇌졸중, 암, 당뇨병 등 만성질환 노인의 돌봄에 대한 중요도 인식보다 높았던 결과(Kim, 2011)로도 미루어 볼 수 있다.

돌봄은 간호에서 환자중심의 활동으로 그 본질을 강조해 왔으며 돌봄의 질은 간호의 질을 결정하고 나아가 간호전문직의 가치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간주된다(Lee, 1996; Tuckett,

**주요어:** 돌봄, 노인, 치매, 질적 연구

**Corresponding author:** Lee, Young Hee

Department of Nursing, Kwandong University, 522 Naegok-dong, Gangneung 210-701, Korea.  
Tel: +82-33-649-7616, Fax: +82-33-649-7620, E-mail: lyh@kd.ac.kr

**투고일:** 2012년 3월 5일 / **수정일:** 2012년 10월 16일 / **게재확정일:** 2012년 10월 18일

2005). 따라서 간호 실무에서 돌봄은 핵심이 되며 치매 환자의 돌봄 역시 실무에서 중요한 과업이 된다(Kaduszkiewicz, Wiese, & Bussche, 2008).

한편, 간호에서 돌봄은 환자와 간호사의 상호주관적인 과정(Wolf, Giardino, Osborne, & Ambrose, 1994)이므로, 치매노인의 돌봄에 대한 간호사의 견해를 그들의 시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를 통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때, 환자의 견해도 중요하나 치매 환자의 경우는 인지장애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이 따라 그들의 견해를 알아보는 것이 제한적일 수 있다.

질적 연구 중 현상학적 방법은 인간경험의 기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험의 의미를 밝힐 수 있는 연구방법(Shin, Cho, & Yang, 2004)으로, 즉, 간호사의 진술을 분석하여 간호사 자신이 경험한 현상의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치매노인 돌봄의 실제 파악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그 연구가 시급하다. 그러나 치매노인의 돌봄에 대한 국내의 질적 연구는 가족의 경험(Kim & Lee, 1998; Yih, Kim, & Yi, 2004)과 생활보조원의 경험(Choi, 2010; Oh, 2003)에 대한 연구 등이 있으나, 간호사의 경우에는 치매병원의 간호사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적용한 Kim (2001)의 연구, 노인병원 간호사의 소진경험(Lee, 2010) 이외에는 찾을 수 없었다. 그 외에도 간호에 있어서 돌봄은 그 상황맥락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Tuckett, 2005), Kramer의 연구(Lee & Park, 1997에 인용됨)에서 돌봄은 시대의 변화와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묘사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2008년 이후 치매노인은 병원뿐 아니라 요양원에도 많이 입소하기 때문에 병원과 요양원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들에 대한 주관적인 돌봄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부감과 불신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대와 신뢰를 형성하여야 한다. 서비스에 대한 신뢰의 형성은 질 높은 노인돌봄 서비스를 경험함으로써 가능하다(Choi, 2010). 따라서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간호사들의 경험을 밝히는 것은 치매노인 간호의 질을 향상시키는 첫 걸음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을 알아보아 그 돌봄의 의미와 본질을 파악하고자 일련의 서술적 경험을 따라가는 Colaizzi (1978)의 방법을 적용하여 연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중재 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

공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가 경험하는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 경험을 심층적으로 규명하여 그 의미를 확인함으로써 노인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간호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현상학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laizzi 방법을 적용하여 간호사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질적 연구이다.

###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C시에 위치한 1곳의 노인 병원과 2곳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였으며 연구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로 참여자의 진술이 포화될 때까지 10명의 간호사가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의 연령은 37~57세로 평균 48.1세였다. 경력은 7~30년의 범위로 평균 16.1년이었으며, 이중 노인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의 경력은 2~9년으로 평균 6.5년이었다.

### 3. 연구자 준비

연구자들 중 연구자 1인은 1990년대부터 질적 연구를 수행해왔고 국내의 학술대회 및 학회지에 다수의 질적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연구자 1인은 질적 연구와 관련된 수업을 이수하였으며 매월 질적 연구 월례회에 참여하여 질적 연구자들과 연구 경험을 공유하였고 국제학술대회에서 질적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연구자는 사전에 노인병원과 요양기관의 원장과 간호부

(과)에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허락을 얻은 후 연구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사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10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비구조화된 면대면 심층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다. 사전에 환자간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을 확인하여 면담일정을 정하였다. 면담장소는 면담이 방해받지 않는 병원 내 간호사실이나 회의실을 이용하였고 면담을 진행시키기 위한 주요면담 질문은 “이곳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와 같은 비구조적인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며 면담을 진행하면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경험의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추가적인 질문을 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 및 자료수집을 위한 녹음기 사용을 설명하고, 인터뷰 내용은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익명성을 보장할 것을 설명하였다. 인터뷰 중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라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면담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50분 정도였고, 한 사람당 평균 1~2회의 면대면 심층면담을 시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하고, 필사하였으며 1차 자료를 분석한 후에는 분석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분석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자료를 포화시켜 나갔다.

## 5. 자료분석

본 연구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진술을 통해 치매노인 돌봄 경험의 현상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자 총체적인 경험 세계의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현상학 방법 중 Colaizzi (1978) 방법은 주체의 관점을 서술한 것 중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진술을 묶어 추상화시켜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다.

1단계에서는 모든 참여자의 구두 혹은 문자로 된 내용을 듣거나 읽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느낌을 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녹음한 면담 내용을 필사한 것을 자세히 반복하여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얻으려고 하였다.

2단계에서는 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의미있는 진술을 추출한다. 면담내용의 필사본을 읽으면서 의미있는 문장이나 구에 밑줄을 그었다. 본 연구에서도 노인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이라는 현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의미있는 구절이나 문장을 찾고 대표할 수 있는 진술을 참여자의 표현 중에서 선택하여 기록한 다음, 다른 참여자의 자료에서 같거나 비슷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나오면 계속 기록하였다.

3단계에서는 추출된 문장과 구절로부터 의미를 구성하는 단계로 보다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만든다. 필사한 원본에서 의미있는 진술을 반성적으로 분석하면서 간호학적 진술로 전환하였다.

4단계에서는 이렇게 구성된 의미를 주제 혹은 범주로 분류하여 조직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된 의미들을 묶어 주제로 조직하였고 주제들을 다시 묶어 주제군으로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제군이 원 자료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반문하였다.

5단계에서는 주제군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기술한다. 본 연구에서도 자료의 분석결과를 포괄적으로 서술하였다.

6단계에서는 가능한 기본적인 구조를 명확하게 진술하여 조사된 현상의 최종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통합하여 진술하였다.

## 6. 연구의 엄밀성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 (1985)의 엄밀성 평가 기준에 따라 사실적 가치(신빙성), 일관성, 중립성 및 적용성의 측면을 확인하였다.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의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참여자가 지각한 경험에 대한 서술이 그 참여자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모든 참여자들에게 면담기록과 분석을 보여주고 참여자가 진술했던 의미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 사실적 가치를 높였다. 일관성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료의 관찰과 분석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자료분석 시 연구자 2인이 각자가 분석한 결과를 상호검토하고 논의하여 그 일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과정 전반과 연구결과를 연구자 2인이 검토하여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을 통제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연구자들은 연구 전 자신의 경험과 선입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개인일지에 기술하여 면담이나 분석 시 개입되지 않도록 구분하고자 의식적으로 노력하였다.

적용성은 연구결과가 연구 상황 이외의 맥락에서도 적합한지를 보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노인병원의 3명의 간호사와 다른 요양기관의 2명의 간호사에게 연구결과를 읽어 보게 하여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미있는 진술이라고 공감함을 확인하여 연구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 연구결과

심층면담을 통한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한 간호사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의 범주(주제)와 하위범주(주제군)는 다음과 같다(Table 1).

간호사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의 6가지 범주는 ‘새로운 만남’, ‘치매노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줌’, ‘돌봄의 딜레마’, ‘안위도모’, ‘포괄적 조정자’, ‘함께 하는 삶’이었다.

### 범주 1. 새로운 만남

참여자들은 치매 환자가 기억력 장애가 있어도 입원 또는 입소할 때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며 환자도 처음 만났던 간호사를 찾고 환자와 관계형성이 잘된다고 하였다. 참여자들은 처음 만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치매, 치매노인은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치매 환자 돌봄에는 초기에 관심을 집중하여 관찰, 관리하면서 관심 있게 접근을 하면 일반 환자보다 치매 환자는 훨씬 많은 부분이 변화되면서 돌봄을 더 잘할 수 있고, 향후의 환자 상태에도 중요하다고 표현하였다. ‘새로운 만남’은 ‘입원 시 환자와의 처음 만남’, ‘치매에 대한 편견을 넘음’, ‘초기 관심 집중’이라는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입원 시 환자와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치매 환자와의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형성을 더 잘

할 수 있으며 초기 사정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일단 환자분들이, 치매어르신들이 처음 오셔서지고 처음 본 간호사에게 의지하곤 해요. 그러나 모든 환자를 그렇게는 할 수 없잖아요. 처음 맞이할 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관계도 그래요. 기억력 장애가 있어도 그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신뢰가 생기구요. 환자보기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많이 기대고 신뢰를 하게 되니까, 환자도 나를 찾고 나도 언어, 행동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 가면서 신뢰가 점점 더 쌓아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얼마 전에도 시립 전문시설에서 도저히 난폭해서, 옆에 환자와 싸우고 해서 그쪽에서 도저히 모실 수 없다고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때 내가 할머니를, 환자 분도 받고 간호사 인계도 받고, 할머니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서 반가워하면서 받았어요. 그쪽 분이 오셔서 면회도 하고 그렸었는데, 너무나 달라지셔서 놀라셨어요. 모르겠어요.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저는 처음의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참여자 1)

참여자들은 환자를 볼 때 치매 환자니까 하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아야 하며 그럴 때 그들이 치매 환자를 위한 진정한 돌봄을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였다.

환자 분이 너무 배회가 심하거나 잠을 안자고 그러ندا

**Table 1.** Categories and Clusters of Themes: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with Demented Older Patients

Categories (emergent themes)	Clusters of themes
New encounter	First encounter with demented patient at admission Attention to the early admission Beyond the prejudice about dementia
Understanding of intention and satisfying	Knowing of mind Keeping their composure
Dilemma of caring	Family's ambivalence Conflict between care facility profits and caring Overwork outside care
Contriving of safety	Providing of good comport like a home Management of wandering
Comprehensive coordinator	Arbitration of self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anagement of work and institution Requirement of professional knowledge
Being present	Feeling usefulness Change of the value of sense

고 가족이 말하면, 우리도 덩달아서 그분은 그럴 거라고... 무엇이냐고 그럴까?... 그분은 그렇게 그 선상에서 만나는 거였어요. 새로운 만남이 아니고...(참여자 1)

저도 치매어르신을 ‘디멘치야’라고 치부한 적도 있었어요. 치매어르신들도 자기 의견을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중증이 아니시면 자신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신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제 스스로 터득하거든요.(참여자 9)

참여자들은 초기사정을 통해 환자의 생활이나 가족관계 등을 파악해 질병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보다 환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초기에 집중적인 간호를 하면 치매 환자를 잘 사정하여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간호를 할 수 있다고 느꼈다.

입원하실 때 팀을 이루어 그분이 적응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모든 집중이 되면, 환자에게 관심이 집중되면 환자는 그대로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1주일동안 정말 관심을 갖고 의사선생님, 간호사, 영양보호사가 함께 집중 관리를 하면,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좀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고 나아지는 것 같아요. 초기에 만났을 때 집중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환경이 바뀌어도 더 나빠지고 하잖아요. 초기에 관리가 되면 그런 분들이 좀 해결이 쉬워지는 것 같아요.(참여자 2)

## 범주 2. 치매노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줌

참여자들은 치매노인들도 그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그들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무언의 것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매노인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치매노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줌’의 범주는 ‘마음을 읽음’, ‘마음의 여유를 가짐’의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매노인들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지 못해도 눈길, 몸짓만 봐도 노인의 욕구를 다 알고 충족시켜주는 것이 치매노인을 위한 진정한 돌봄이며 치매노인들의 언어나 행동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들은 치매노인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또한 치매노인에 대

한 진정한 관심이 있어야 함을 느꼈다.

치매 어르신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어르신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경청하고, 예. 말이 두서가 없더라도요, 나중에는 오랫동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경청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어르신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있어요. 할머니가 자제분이 보고 싶어 서인지, 돈을 잊어버려서인지, 그냥 배회하는 것이지 알 수가 있거든요. 어르신과 같이 있으면서 어르신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참여자 4)

치매 환자들은 힘든 것 같아요. 잘해 주려고 해도 막 화를 내는 분도 있고 치매 환자는 참 힘들어요. 치매 환자분들은 화를 내거나 때리려고 하고... 그럴 때에는 일단은 말하는 데로 다 받아들여주고, 틀린 말이라도 받아들여주고 인정을 해주면 좀 나아지셔요. 괜히 선불리 접촉하면, 할머니에게 접촉을 하려고 시도했다가 더 화를 불러 일으킨 적도 있어요. 인정해주고 틀린 말이라도 주의 깊게 들어주고 하는 것이 일단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3)

치매노인들의 의중을 파악하고 충족시키려면 간호사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많은 인내심과 관찰이 필요함을 표현하였고 간호사들이 그들의 마음을 읽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 필요함을 느꼈다.

치매 어르신들은 간호사들이 잘 파악하여 알아서 해주어야 한다고 봐요. 치매노인을 돌볼 때 너무 조금하게 생각하면은 진짜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PRN 써도 안자는 어르신의 경우 ‘자자, 자자하면 그냥 자기도 해요.’ 그냥 지켜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잘 안자면 무조건 약을 쓰려하지 말고 안정시키려고 해요. 눕혀 놓고 같이 자자하면서 부드럽게 대해주면 금방 자더라고요. 눈 감게 하고 조금 토닥거리 주면...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하면,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심리적으로 부드럽게 대해 주면 되더라고요. 여유를 갖고...(참여자 9)

치매어르신들은 의사소통을 할 때 시간이 배로 걸리잖아요. 옷 입고 식사하는 것 등도 단순 수발이 아니라, 치매노인이 화난다고 던져버리면 획 견어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참여자 5)

### 범주 3. 돌봄의 딜레마

참여자들은 치매노인 가족들이 노인의 상태, 경제적 문제 등으로 양가감정을 보이고, 환자를 잘 돌봐서 환자의 등급이 상향되면 기관의 수익이 감소하므로 치매노인 돌봄에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돌봄 이외의 과도한 업무와 이 때문에 참여자들이 배운 것과 다르게 시행되는 간호행위로 진정한 돌봄을 할 수 없다고 느끼며 누구를 위한 돌봄인가, 치매 환자에서 무엇을 돌봐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를 갖는다고 하였다. ‘돌봄의 딜레마’ 범주는 ‘가족들의 양가감정’, ‘시설의 수익과 돌봄 간의 갈등’, ‘돌봄 이외의 과도한 업무’라는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매 환자들이 건강상태가 호전될 것 같지 않던 상태가 좋아지면서 자식이나 보호자 된 입장으로서 도덕적 의무를 했다고 여기지만, 장기간으로 가면서 보호자들이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가지는 것을 느낄 때 치매노인을 잘 돌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표현하였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힘들었던 점은 가족들은 12월 중반에 12월 18일인가, 요양원에 모시면서 12월에는(돌아) 가실 줄 알았는데 지금은 좋아지셔서 치매가 있으시지만 의사소통이 되도록 하시고 침대에서 내려오시고 싶어 하여 시도를 매일 하고 있는데, 침대 난간을 내려 보고.. 그런데 요양원이라는 곳이 상태를 그렇게 좋게 하는 것에 대해... 보호자들은 안 좋아하시기도 해요. 보호자의 표정이 걱정스러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좀 미안해요. 사실 요양원에 모실 때는 가족이 힘들어서 모셨는데 시일을 우리가 끝낼 과연 잘하는 것인지, 가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치매 또는 가족들이 오래 살기를 바라지 않는 어르신들은 공연히 보호자들에게는 속으로 괜히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보호자들 중에는 한숨 쉬시는 분이 있어요... 보호자 중 체면 때문에 갈등하시면... 가족들도 처음엔 입원시켰을 때 와보는 횟수가 잦았는데 좀 지나면 잘 안 오시지요. 어떤 경우에는 아들 부부가 병원비 내려 오셨다가 아들이 며느리보다 더 화를 내시기도 해요. 자식들도 양가감정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모시지는 못하지만 재가수준 50만원 미만이면 괜찮은데, 자식들이 나누어내도 그러나 80만원 이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장기간 되면 자식 형제들 간에 사이도 안 좋아지고...(참여자 10)

참여자들은 치매 환자지만 최선을 다해 돌보며 그러면 환자의 상태가 좋아져 환자의 등급이 변화되고 이런 상태는 기관이나 시설의 입장에서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므로 치매노인을 잘 돌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갈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도 노인수발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면서 모르는 겁 같은 것이 있어요... 가족 분들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들은 과연, 건보(건강보험)공단 쪽에서도 재환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1등급이 3등급으로 좋아졌다고 해서 저희에게 성과급이나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용이 깎이니까, 예. 비용의 차이가 많이 나요. 거기에서 오는 회의도 커요. 그러니까 어떤 때에는 문득, 지난 번 어떤 직원이 하는 말씀이 ‘그럼 뭐야’ 하셨어요. ‘어르신들을 다 눕혀놓고 1등급을 다 계속 1등급으로 눕혀놓아야겠네!’ 라고 어떤 분, 직원이 말씀하셨어요. 다 눕혀놓아야겠네, 3등급이 되면 돈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노인 돌봄이라는 것이 아예 없지를 않느냐?... 시설을 운영하시는 정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정책이라는 것이 현재 변동기에 있다 보니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어르신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관리상의 차이를 조율하는 것이 아직까지 하고 있는 중이에요. 시설도 운영경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직원들이 어르신 케어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은데 건보공단 측은 비용 삭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케어해서 등급이 상향되면 시설 측은 비용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참여자 5)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후 평가 때문에 간호사들이 기록과 행정적 업무 등이 많아지고 시간과 인력부족으로 치매노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짧아지고 배운 것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실제적인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하였다. 또한, 노인병원이나 요양기관의 특성상 비교적 일이 적을 것이라고 기대한 간호사들과 나이 많은 간호사들이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치매노인을 잘 돌보는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번 평가받을 때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어르신을 잘 모신다고 생각하고 모셔왔는데 평가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저희 어르신 서비스나 돌봄보다는 이제는 서류 작성하고, 이런 컴퓨터 입력에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차트에 더 매달리고 있어요. 어르신에게 한 번이라도 더 가뵈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요즘은 ‘예~어르신 잠깐만요, 이것만 기록하고 이것 누락하면 안 되거든요.’하고 기록하고 가게 되면 바지에 벌써 싸고.... 과연 이게 돌봄인가요? 다른 데 있다가 오신 간호사가 이곳은 업무가 너무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계속 여기 있어서 모르겠는데 먼저 있던 간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업무량이 많아지면 내가 왜 대학병원에서 일하지, 이곳에 왔겠느냐고... 여기서 조금 여유롭게 근무할 줄 알았다고 해요. 저희가 노인병원이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3교대 하는 것 등 좀 꺼려요. 나이드는 사람들이 대개 오세요.(참여자 8)

...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하고는 중증 어르신이 많아졌고 그리고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가 복잡해졌어요... 사실 여기 직원들이 욕창전문교육, 치매간호사교육 등 여러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치매교육을 받고 와도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펼쳐 보이기 어렵음이 커요. 진료 모시고 가는 일이 주요 업무 중 하나거든요. 작년에 건보공단평가를 받아보니까 거의 그 기준이 병원수준 이예요. 그러니 기록 등에 매달리게 되요. 침상에서의 간호보다는 밖에 나가서 진료에 소요시간이 크고 기록에 매달리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선생님들이 육체적으로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요... 그런 걸 살펴서 심리적 안정을 시켜야 하는데 1~2시간 매달려서 관찰하고 해드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분명히 1~2시간 지지하여 분위기를 전환시켜, 산책을 시켜드린다고 하면 분명히 안정이 되기는 하는데... 휠체어를 써도 도움이 되는데... 시간이 안 돼서... 그래서 한두 번 말해서 안 되면 약 쓰는 수가 종종 있어요.(참여자 5)

#### 범주 4. 안위도모

참여자들이 진술한 안위도모는 치매노인들에게 안전함, 편안함을 제공하여 치매노인이 편안하고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려야 하고, 또한, 치매노인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배회를 잘 관리하는 것이다. ‘안위도모’의 범주는 ‘집과 같은 편안함 제공’, 안위를 위협하는 배회 관리’라는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의 돌봄은 치료보다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환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고, 환경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 자기 집과 같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치매 환자분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사시잖아요. 일단 치매 환자분의 돌봄은 악화되지 않게 현 상태를 유지시켜 주면서, 만약에 잠을 못 이루어서 고생을 한다면 투약을 한다든지 하여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리는 것. 돌봄은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지요.(참여자 5)

... 환자 분을 안심시키고 여기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분위기 그런 곳이라는 것을 치매 어르신이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간호, 치매어르신이 여기가 편안하고 도움이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느끼게 해드리는 간호여야 하지 않을까... 치매는 환경 같은 게 바뀌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 방을 많이 바꿔 드려요. 방 바꾸는 것을 되게 불안해하세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환경을 많이 안 바꿔요. 대개 불안해하시거든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하시고 ‘여기 우리 집이야’ 하고 우시기도 해요.(참여자 6)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의 배회는 돌봄을 어렵게 한다고 토로하였다. 배회는 안위를 위협하며 낙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으면 돌봄이 더 어려워지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약이나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다고 표현하였다.

치매노인은 힘들어요. 넘어 지실까봐, 이방 저방 다니니까, 때리기도 하고, 엉덩이로 침대 밖으로 밀고 다니고, 그걸 살펴봐야 하니까... 또 못하게 하면 화를 내기도 해요. 몇 번 달래보기는 하는데 안 되면 진정제(아티반)를 사용해요. 아티반 써도 안 듣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진정제 써서 쳐지시면 삼키는 것 안 되고 그러면 열나고 폐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약을 줄이면 배회, 소리 지르고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또 나타나고 그게 반복되요. 약 쓰고 쳐지고 열나다가 약 줄이면 소리 지르고 애들처럼 떼쓰고 안 되면 미끄러져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까지 나오세요. 그래요, 몇 분이 반복되고 있어요.(참여자 9)

배회 때문에 공격성이 있을 때 안정제가 섞여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 분들은 다리에 힘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다니실 때 넘어 질까봐 옆에 같이 다녀야 해요. 부축은 안 하더라도... 쫓아 다녀야 해요. 아니면 병실을 못 찾고 남자 환자가 여자 방으로 가고 그래요. 부축할 정도면 휠체어를 태워야지요. 휠체어 태워 놓으면 억제대를 해야 해요. 내려오시려고 해요. 실제적으로 화장실서 넘어져서

꿀절 입으신 분도 있고요. 넘어져서, 화장실서 일어나다가 쿵하면서 모서리 같은 데에 부딪쳐 이마가 찢어진 분도 있어요.(참여자 8)

## 범주 5. 포괄적 조정자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기 위해서는 자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족, 영양보호사, 직원 등 환자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중심에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 또한, 행정적인 일이나 환자 관리 등, 환자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포괄적 조정자’의 범주는 ‘자기 및 대인관계 조정’, ‘업무 및 조직관리’, ‘전문지식의 요구’라는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의 입장에서 돌보아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치매노인의 특성상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폭력적인 정신 행동 증상을 보일 때는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가족과의 의사소통, 협조가 되면 신뢰관계가 형성되고 환자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더 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부서의 직원이나 영양보호사와 협력관계를 가지고 조화롭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표현하였다.

거의 잘해주고 싶고 잘해드려야 하는데 견잡을 수 없게 화를 내고 갑작스럽게, 때리고 그럴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떨 때는 욕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만 나타나면~해 달라, ~해달라고 하니깐 다들 피하게 되요. 나 뭐해 달라, 나 화장실 가야 한다... 사실 다 들어 드려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것만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해요... 우리 엄마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미움을 많이 받으시는데 저라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자기 갈등조정을 잘 해야 돌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참여자 6)

저희가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과의 의사소통,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돌보는데 있어서 저희를 들볶는다고 해도 그런 문제없다고 하세요... 까다로운 보호자도 힘들고요. 돌봄은 빙산의 일각 같아요... 시설에서는 팀워크가 가장 중요해요. 간호사가 ‘이런 케어가 필요합니다.’ 해도 영양보호사들이 직접 케어를 못하면 안 되므로 팀워크가 중요해요... 부서의 견해 차이, 시각차이도 직원에게는 힘든 것

같아요. 직원 간의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어요.(참여자 7)

참여자들은 환자와 관련된 모든 인력과 업무를 관리하는 것도 돌봄에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였다. 간호사들은 이런 것에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모든 것을 알고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시거든요. 차, 아로마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요법은 물론 영양보호사 관리, 의사의 처방 실시도 모두 간호사가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미술요법사가 오시더라도 간호사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요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처방도 그때그때 환자 상태를 보지 않으면 상태에 따라 투약도 스톱할 수 있는데... 원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간호사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 포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을 다할 수 있어야 돌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봐요... 여기엔 가족도, 조무사, 영양보호사, 봉사자 15명 정도 오거든요. 이런 분들을 잘 관리해서 그분들이 돌봄을 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간호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해보면 간호사가 센터에서 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고...(참여자 1)

참여자들은 치매 환자를 좀 더 잘 돌보고, 포괄적 조정자 역할을 하려면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고 직원들에게도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여튼 간호사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단기과정이라도 교육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 후 보이는 거예요. 이것저것이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서는 거예요. 수간호사도 4개월 과정 이수하고 나서는 이제는 치매를 가진 노인 분에게 가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막연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의욕이 있어도 잘 모르겠었는데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영양보호사들을 위해 월 2회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어요. 서로 간에 힘들었지만, 교육은 좋은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7)

## 범주 6. 함께 하는 삶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면서 그들이 반응을 보이거나

안정될 때 보람되며, 무언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돕고 산다는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함께 하는 삶’이라는 범주는 ‘보람을 느낌’, ‘가치관 변화’라는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에게 자신들의 부모같이 생각하고 오랜 시간 삶을 공유한다는 마음으로 돌볼 때 가족 같은 정이 느껴지고 치매노인들이 편안해지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오래있다 보니까 오래 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한번 들어오시면 오래 계시잖아요. 이곳은 가족관계 같고 정이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냥 제 입장에서는 가정에서처럼 어르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 마음가지고... 처음에 마음에 문을 열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하세요.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붙이고 스킨십을 하고 어떤 때는 안아 드리고 어떤 때는 칭찬도 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제 시간을 따로 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저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참여자 7)

참여자들은 치매노인을 돌보는 기관이나 시설에서 일하면서 자신의 성격이나 가치관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말하며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것에 자긍심을 갖는다고 하였다.

저는 여기에 와 가지고 완전히 제 인생을 새로 시작을 했지요. 처음 올 때에는 그냥 양로원인줄 알고 왔는데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처음 봤거든요... 제가 나이를 먹고 와서 그런지 성격, 인생관이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으나 저도 나이를 먹어 가면서 그런지 같이 늙어 간다고 할까, 좀 안쓰럽고... 그런 생각으로 돌본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무언가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있어서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간호사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병원에 있을 때는 가치관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변했다는 것도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참여자 7)

## 논 의

본 연구는 노인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참여자의 진술을 근거로 분석하였다.

돌봄은 그 속성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기보다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Brechin, Walmseley, Karz, & Peace, 1998).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새로운 만남’이라는 범주는 비록 치매노인이지만 입원 시 간호사와의 처음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초기에 관심을 집중하여 관심 있게 접근을 하면 일반 환자보다 치매 환자는 훨씬 많은 부분이 변화되면서 돌봄을 더 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Westin과 Danielson (2006)이 돌봄이란 단순히 의존적인 이들의 신체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일 뿐 아니라 친밀성과 관심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관계이므로 치매노인들과의 관계는 돌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 보고를 지지한다. 또한, 너싱홈 간호사의 돌봄 경험으로 좀 더 집중하고 서로 친숙해지려고 하고 확인하는 것 등으로 ‘함께 하기’, ‘중요하게 여기기’ 등을 제시하여 대상자와의 만남에 의미를 부여하였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한편, Eriksson과 Saveman (2002)은 ‘치매’, ‘노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간호사의 돌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치매 환자가 혼란된 행동을 하면 환자의 요구보다는 일상적 업무만을 한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치매에 대한 편견을 넘음’에서 나타난 치매노인은 그럴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말고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과 치매노인과의 첫 만남이 중요하다는 결과는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에게 부정적 견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치매노인의 의중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줌’의 범주는 치매노인과 간호사와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치매노인과 교감을 형성하여 그들의 마음을 읽고 노인들의 행동 이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Kim (2001)에 의해 간호사들은 치매노인을 인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돌봄 속에서 치매노인을 ‘감싸 안음’으로서 치매노인을 이해하고 깨달아간다는 결과와 상통된다. 또한, Westin과 Danielson (2006)은 너싱홈 노인들의 행동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를 확인하기’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도 치매 환자이지만 그들의 행동과 언어에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거나 충족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인다. 이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이 업무 중심적이기보다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의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안위도모’의 범주에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주제군인 ‘집 같

은 편안함 제공'은 치매 환자를 안심시키고 편안한 환경임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Rowe와 Glover (2001)의 지적과 같은 맥락이다. Choi (2010)는 요양보호사가 인식하는 좋은 돌봄이 '가족 같은 돌봄'이라는 범주로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인지장애가 있는 치매노인들이지만 '집같이' 인지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안위를 위협하는 배회 관리'는 다른 연구에서도 배회가 가족 부양자의 주요 스트레스원임과 동시에 치매노인이 요양기관에 입주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원인 (Rowe & Glover, 2001)이었다. 배회는 간호사들이 치매노인을 돌보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관리가 어렵다고 하였으며 특히, 상해를 초래하는 배회는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게 될 때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돌봄 경험 중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돌봄의 달레마' 범주에서 '가족들의 양가감정'으로 나타난 주제군은 Kim 과 Lee (1998)의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의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연구에서도 치매노인 가족들은 심리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상통된다. Kim (2010)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상황에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는 치매나 중풍 노부모 돌봄에 대한 가족의 돌봄에도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가족에 의한 돌봄은 다양한 맥락에서 결정되고 조정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노인 돌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부모의 돌봄으로 인해 형제 자매 관계가 재구성되고, 갈등이 초래되며, 나이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제도화로 인해 직접 돌봄보다는 요양시설 등 사회적 돌봄서비스 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치유되지 않는 치매라는 질병과 새로운 사회적 제도의 도입, 사회 환경의 변화로 과거 가족의 돌봄이라고 여겨졌던 치매 부모의 돌봄이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또한, 자녀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노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부모를 입소시켜 부모 돌봄과 경제적 문제 등에서 잠시 벗어났지만, 질병의 특성상 장기화되거나 또는 요양등급이 더 개선되었을 때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이는 노부모 돌봄은 외적으로도 덕적 규범에 준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내면을 보면 현실적 태도를 보이고 가족관계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 돌봄이라는 가치와 치매노인이라는 현실 속에서 자녀간의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한 양가감정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 상황에서 간호사는 노인을 잘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등을 가지게 된다. '시설수익과 돌봄 간의 갈

등'이라는 주제군에서는 현재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근로자로 있는 간호사의 경험을 대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현재 적용되는 급여종류별 수가는 수가산정방식이 환자의 중등도에 따른 등급별 차등 정액제이다. 이는 서비스 질이나 개별적인 서비스 제공 양에 관계없이 동일가격을 보상하는 것은 서비스공급자가 이익을 최대화하고 서비스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을 축소하는 유인을 가질 위험성이 존재한다. 또한, 운영적 측면에서 보면 시설별로 인력 1인당 보호노인수를 설정해 놓고 최소기준으로 강요하고 있으므로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중등도가 높은 보호노인을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Seok, 2008). 따라서 1등급의 환자를 잘 돌보아 3등급이되었을 때 시설의 수익이 감소한다는 측면에서 간호사의 입장에서는 노인을 잘 돌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돌봄인가를 고민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돌봄 외의 과도한 업무'라는 주제군은 특히, 장기요양시설 평가라는 상황 하에서 간호사들의 기록 작업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노인시설이나 병원 간호사들이 돌봄 이외의 업무를 많이 하게 되며, 시간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것과는 다르게 실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때 달레마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 (2010)가 제시한 노인병원 간호사의 소진경험에서 '끊임없이 요구되는 일상의 돌봄 활동', 간호의 영역이 많이 요구됨'으로 소진을 경험하고 간호직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가져온다고 하는 결과와 유사한 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포괄적 조정자'라는 범주는 '자기 및 대인관계조정', '업무 및 조직관리', '전문지식의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 결과는 Park, Lee, Cho와 Park (2009)의 연구에서 노인요양 시설은 간호사의 업무 특성상 야간 및 교대근무가 필수적이며, 응급상황이 많은 반면 의사가 상주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의사결정이 요구되므로 간호사의 심리적 부담이 크며 이로 인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와 공통되는 바가 있다. 이외에 노인병원 간호사의 소진 경험으로 Lee (2010)는 '비전문 인력의 관리부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상황도 혼자 처리해야 함'을 도출하였고 이는 노인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가 다른 직원들보다도 중추가 되어 포괄적 업무를 담당해야 함을 의미하여 본 연구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이 간호사 경력도 풍부하고 노인병원 간호사 경력도 많아 포괄적 조정자로서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의 '함께하는 삶' 범주는 '보람을 느낌', '가치관 변화'의 주제군으로 나타났다. Oh (2003)도 치매시설 생활보조원들이 동료, 환자와의 인간관계 형성과 남을 돕는다는 인

식으로 인간적 성숙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근거이론방법을 적용하여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과정을 밝힌 Kim (2001)의 연구에서도 치매노인에게 신체와 정서, 심리적인 돌봄이 잘 조화될 때 가족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며 간호사와 치매노인이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어우리집'을 경험한다고 하였고, 그밖에도 '자아성찰 확대'의 패러다임을 도출한 결과들과 상통되는 점이 있었다. 이는 질병의 특성상 치매노인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함께 오래 생활하고 가족 같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융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사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을 이해하여 치매노인을 위한 간호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간호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노인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치매노인을 돌보는 간호사의 경험을 기술하고 범주를 추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C시 노인병원이나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0명으로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을 통해 면대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Colaizzi (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방법에 근거하여 자료수집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사의 치매노인 돌봄 경험은 치매노인에 대한 고정 관념을 넘어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하며, '치매노인의 의증을 파악하고 충족시켜줌', 치매노인을 위한 돌봄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는 '돌봄의 딜레마', 안전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안위도모', 조정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전문직인 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포괄적 조정자',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함께 하는 삶'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노인병원이나 요양기관 간호사의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 경험을 탐색하여 각 범주를 도출하였고 간호사들이 치매 환자를 만나고 그들을 잘 알아가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토대로 노인병원이나 요양기관 간호사 나아가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치매간호 교육과 실무에서 각 범주들을 고려한 간호로 치매노인에 대한 간호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향후 치매 환자 간호교육이나 실무에서 특히, 치매노인 환자와 처음 만남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또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가 포괄적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체적, 심리적 돌봄 뿐 아니라 행정, 정책, 경제적 측면 등의 다각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 밝혀진 각 범주들에 대해 구체적인 탐색적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특히, 돌봄의 딜레마 범주

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탐색적 연구와 더불어 대처 전략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각 범주를 토대로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구조화된 후속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 REFERENCES

- Brechin, A., Walmsley, J., Karz, J., & Peace, S. (Eds.). (1998). *Care matters - concepts, practice and research in health and social care*. London: Sage.
- Choi, H. J. (2010). A study on 'good care' perceived by direct care workers of nursing facilitie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48*, 31-58.
- Colaizzi, P.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riksson, C., & Saveman, B. I. (2002). Nurses' experiences of abusive/non-abusive caring for demented patients in acute care setting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16*, 79-85.
- Hendrix, C. C., & Wojciechowski, C. W. (2005). Chronic care management for the elderly: An opportunity for gerontological nurse practitione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Nurse Practitioners, 17*, 263-267.
- Kaduszkiewicz, H., Wiese, B., & Bussche, H. V. D. (2008). Self-reported competence, attitude and approach of physicians towards patients with dementia in ambulatory care: Results of a postal survey. *BMC Health Services Research, 8*(54), 1-10. <http://dx.doi.org/10.1186/1472-6963-8-54>
- Kim, C. G. (2011). Importance of and influencing factors on nurses' caring behaviors for elders with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3*, 160-169.
- Kim, K. B., & Lee, K. H. (1998). Ethnography of caring experience for the senile dementi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8*, 1047-1059.
- Kim, M. Y. (2001). *The nurses' experience process caring for the demented elder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Y. R. (2010). *Caring experiences of family caregivers of providing care for chronically-ill old adul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Lee, B. S. (1996). Concept analysis of car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6*, 337-344.
- Lee, J. S. (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burnout experience for nurses in geriatric hospita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Busan.
- Lee, Y. W., & Park, E. H. (1997). Meaning of caring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9*, 86-97.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Sage.

- McCloskey, R. M. (2004). Caring for patients with dementia in an acute care environment. *Geriatric Nursing, 25*, 139-144. <http://dx.doi.org/10.1016/j.gerinurse.2004.04.006>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1, April). *Survey of 2009 dementia prevalence*. Retrieved January 30, 2011, from Web site: <http://www.mw.go.kr>
- Oh, J. J. (2003). The experience of care-assistants in facilities for dementia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3*(1), 75-92.
- Park, Y. O., Lee, K. J., Cho, E. H., & Park, H. J. (2009). Factors affecting turnover intention of nurse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elderly peopl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1*, 81-89.
- Roger, K. S. (2008). Priorities for people living with dementia: Education, counseling, research. *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3*, 573-579.
- Rowe, M. A., & Glover, J. C. (2001). Antecedents, descriptions and consequences of wandering in cognitively-impaired adults and the Safe Return (SR) program. *American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and Other Dementias, 16*, 344-352. <http://dx.doi.org/10.1177/153331750101600610>
- Seok, J. E. (2008). Unit costs of care services in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Its characteristics and evalu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39*, 253-286.
- Shin, K. R., Cho, M. O., & Yang, J. H.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Tuckett, A. G. (2005). The care encounter: Pondering caring, honest communication and control.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Practice, 11*, 77-84.
- Westin, L., & Danielson, E. (2006). Nurses' experiences of caring encounters with older people living in Swedish nursing homes. *International Journal of Older People Nursing, 1*, 3-10.
- Wolf, Z. R., Giardino, E. R., Osborne, P. A., & Ambrose, M. S. (1994). Dimensions of nurse caring. *IMAGE: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26*, 107-111.
- Yih, B. S., Kim, C. M., & Yi, M. S. (2004). Women caregivers' experiences in caring at home for a family member with dementia: A feminist approach.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4*, 881-890.